

## P9. 농촌 여자노인의 BMI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최정숙, 권성옥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평균수명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단순한 수명 연장보다는 사는 동안 좀더 나은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면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여자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9월에 걸쳐서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은 예천, 순창, 북제주, 남해 및 보성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여자노인 3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 CDC(질병예방관리센터)에서 개발하여 BRFSS(Behavior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한 HRQOL(Health-related quality of life)의 핵심 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일반적인 건강상태(5점 척도), 최근 30일 동안의 신체적인 건강장애 일수, 정신적인 건강장애 일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평상시 활동제한 일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문항으로 Healthy days를 계산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8.1을 이용하였다. 여자노인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5-74세가 57.4%, 75-84세가 33.8%, 85세 이상은 8.7%였다. 정신적인 장애일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신체적인 장애일수나 활동제한 일수는 65-74세에서 각각 11.0일, 9.1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았다. 한편 최근 30일 동안의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없는 일수인 Healthy days는 전체 평균이 14.9일이었으며, 연령대별로 65-74세가 17.4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과체중일수록 Healthy days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대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에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수준이 높고,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직업이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Healthy days가 높은 반면, 신체적인 장애 및 활동제한 일수는 낮아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수준의 경우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그룹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 여자노인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사회경제적인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